

법정 스님이 우리들 가슴에 적고 간 이야기들



가슴이 부르는 만남
변택주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1만5천원

법정, 그 두 글자는 글자만으로 설법이고 수필이다.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여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그의 이름도 이제 맑고 향기로운 삶의 보통명사처럼 들린다. 흥겹 가사 하나 덮고 적멸의 길로 떠난 지 3년. 그를 지적에서 만났던 먼발치에서 보았던 그와의 만남은 만남 자체가 고운 '문장'이다. 혜민 스님, 이해인 수녀, 이철수 화백 등 여덟 편의 고운 만남을 실은 책은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의 이야기 <법정, 나를 물들이다>의 후속으로, 2012.1~2013.9 분지에 연재되었던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의 후반부다.

"우연한 스침은 있어도 우연한 만남은 없다. 만남이 결을 이룬다. 물이 눈에 들어 버를 살리고 산에 들어 푸나무를 살리듯이, 뜻 맞는 사람들이 만나 비벼대며 서로를 빛내는 결이 바로 숨결이다." 저자의 말대로 책은 '만남'에 펜을 겨누고 있다. 그 만남 중에서 법정 스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났던 만남들이다. 책은 네 마디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마디에는 '세상을 버리다'라는 제목으로 김선우, 박석우, 최완수, 도법, 윤규병의 만남을 실었다. 둘째 마디(어우렁 더 우렁)에는 지목, 이해인, 임의진, 금강, 혜민의 만남을 실었고, 셋째 마디(내가 길이다)는 김중서, 이철수, 홍성리, 문순태의 만남이다. 마지막 넷째 마디(답



1995년 봄 길상사. 법정 스님이 행지실 돌담 위로 큰 매화와 마주했다.

지인 18명의 인연담 수록

힘든 이에게 위로 주는 이해인 수녀,

<멈추면 비로소...>의 혜민 스님도

스님의 말과 글에서 위로 받고 힘 얻어

고 향기롭게)는 배차년, 나석정, 정태호, 김의식의 만남이 실려 있다.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진실한 만남은 앞으로 나아가 힘과 용기를 준다. 그대여, 무릎 꿇기엔 아직 이르다. 가슴이 부르는 만남이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다. 희망과 위로도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멘토들도 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들도 기릴 수 있는 따뜻한

등이 필요했고, 누군가 그들에게 등을 내주었다." 따뜻한 시로 우리에게 기쁨을 보내는 이해인 수녀. 법정 스님의 글과 만남으로 인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돌고래를 더 쥐서 든듯했다고 기억한다. 유명세 때문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는 스님이 농담으로 미소를 되찾아 주기도 했다. 이해인 수녀는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친분 농도만큼 아프다."는 법정 스님의 글을 가슴에 새기고서, 암에 걸려 몸이 고달픈 텐데도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정성껏 만나 오늘도 기쁨을 나누고 있다.

중학생 시절 <무소유>를 읽고 영혼의 울림을 느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은 법정 스님 책이라면 무조건 사서 읽은 열혈 독자였다. 미국에 유학 갈 때도 스님의 책 <새들이 날아간 숲은 적막하다>를 챙겨 가서 삶이 고달플 때마다 꺼내 읽

었다. 출가 후 미국에서 고대하던 법정 스님을 뵈고 자주 모신 혜민 스님은 법정 스님이 승려가 글을 쓰는 문화를 만드셨기에 오늘의 자신도 있을 수 있었다면서 법정 스님을 인정한 할아버지로 기억한다.

"제가 아주 젊어서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부처님 일대기를 봤어요. 반듯한 우리말로 번역한 부처님 일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계신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소유>란 수필집도 내셨더군요. 이런 인연이 쌓일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뒷날 제가 스님 대표작 <무소유> 표지 그림도 그리게 되고, 뒷늦게야 이렇게 만나고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이세요.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스님도 그런 분이셔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젊어서는 스님의 책만 열심히 봤다는 이철수 화백(판화가). 그는 <무문관> 48쪽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만드는 연작을 준비하고 있다. 선화를 해 보고 싶었던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그럼으로 창을 내는 일"이란다.

우리는 법정 스님을 <무소유>를 비롯한 많은 글을 남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의 글은 스님의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늘 잊지 못할 글들을 적고 있었다. 스님이 만나는 가슴마다에 적어 놓은 수필들이다. 스님은 이제 당산이 심은 나무 곁으로 돌아가 함께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있다. 스님을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스님을 만난 이들이 스님을 닮아가고 있다. 세상이 스님을 닮아가는 날을 기대하게 한다.

박재완 기자 wanhillo@hyunbul.com

서정주 아우 서정태의 오래 참았던 노래 90편

그냥 덮어둘 일이지

서정태 시·문학자 사진 | 시와 펴냄 | 1만천원



"앞에 앞은 다박솔이 커서 / 학이 날아 와 우는 날 / 그 하늘 너무나 맑기만 해 / 천상의 피리소리도 들리는 날 / 오래도록 참아왔던 나의 노래 / 그때에나 한 곡조 불러보라" -학이 우는 날. 미당 서정주의 동생 우하 서정태가 오래도록 참아왔던 노래를 불렀다. 올해 90을 맞은 우하의 두 번째 시집이다.

우하는 시인이면서 시인을 꿈꾸며 살았다. 미당이라는 높고 높은 산이 늘 눈앞에 있었다. 미당이라는 산이 그에게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그 산은 보지 않아도 보이는 산이고, 오르지 않아도 힘든 산이었다는 것이 남들과는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으로 인해 그는 시인으로 불리지 못하고 미당의 동생으로 불렸다.

형 미당은 어려서부터 시 쓰는 소질이 뛰어났다. 우하는 그런 형을 보면서 시인을 꿈꿨다. 우하는 첫 시집을 준비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 그가 시를 꿈꾼 건 미당의 영향이었지만 미당은 동생 우하의 시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하는 시를 접고 기자가 됐다. 1946년 민주일보를 거쳐 전북일보에서 30년 간 일했다. 같은 세월 미당은 한국의 시성(詩聖)이 되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었을까. 1986년, 우하는 첫 시집 <천지의 노래>를 낸다. 형 미당이 동생 우하에게 말했다. "네 시 참 좋더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다. 미당이 서문을 썼다. "내가 쓴 시들이 부디 명이 길어서 나와 너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 살아있는 것이 되기만을 바란다. 1986년 1월 29일 미당 서정주." 그로부터 27년이 흘렀다. 학이 뜰 앞에 날아 와 울고, 천상의 파도소리도 들려온다. 시인을 꿈꾸며 살아온 시인은 오래도록 참아왔던 시 90편을 드디어 부른다.

"동네 바람이 불어와서 / 창가에 매화가 피면 / 그 향기에 / 난 그대 생각하리 // 서해 바람이 준령 넘어 / 해 뜨는 곳으로 가서 / 태화강변 / 갈나무에 가을빛 알리거든 / 그때엔 날 생각하거 // 너와 내가 사는 세상 / 바람의 소식이면 그 뿐 /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니 / 세월이사 간들 어떠하리" -바람의 소식-전문

우하의 시는 따뜻하다. 오랜 세월, 삶이라는 모진 풍파를 견뎌온 아흔의 고개에서 내려다본 삶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네 세상살이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선을 선사한다. 우하의 시는 고요하다. 도시의 소음이나 거친 삶의 흔적들은 그의 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하의 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과 소통한다. 그의 시에서는 흘러가는 시냇물 한 줄기, 돌맹이 하나까지도 작은 생명력을 얻는다. 그리고 우하의 시는 그의 삶을 닮았다. 소박하면서 정겨운 그의 삶은 슬한 고비들을 품고서 따뜻한 성찰의 시가 되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30 ~ 1/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한지공헌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뒤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용	웅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생안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그대는 그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목 혜자	아침민형
8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9	롭상 람파의 가르침	롭상 람파	정신세계사
10	우리 절집의 옛이야기와 한담	김영숙	운주사

※ 불서총편집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짧은 이야기, 깊은 그림책

신기한 목탁 소리

한승원 글 · 김성희 그림 | 보림 펴냄 | 1만2천8백원



"어느 큰 절에 늙은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이야기'를 시작하듯 시작하는 책은 단 열여덟 문장과 열여섯 컷의 그림이 전부다. 글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한승원이 썼고, 그림은 김성희의 목판화다. 책은 일흔을 넘긴 한승원이 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다.

어느 큰 절에 귀가 들리지 않는 늙은 스님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목탁을 짚는다는 스님의 이야기이다. 마치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듯한 이야기의 표면은 간결하다.

그렇지만 내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노작가는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대한 삶의 자세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할 손자에게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작가 자신이 궁구해온 삶의 철학을 은유적으로 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문장, 한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며 완성해 나갔다고 작가는 말한다.

술술 읽히지만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노작가가 오랫동안 매만저온 이야기와 함께 그림책 속의 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책 속의 그림은 작가가 한 마음으로 목탁을 짚는 이야기 속 스님을 생각하며



목탁을 짚듯 짚는 목판화다. 작가 스스로가 자신을 짚는 마음으로 짚은 그림은 목판화가 주는 따뜻한 나뭇결과 중첩된 색의 깊이가 새로운 여운을 준다. 판화의 돌을세김과 오목세김의 명징한 명암의 대비가 글의 간결함과 함께 어우러져 더 한층 깊은 세계를 구현했다.

작가는 목판화로 목탁소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다. 칼이 지나가야 할 길목을 나이테와 웅이가 막아질 때가 작가는 이야기 속의 스님을 생각했다고 한다. 스님이 목탁을 짚듯이 자신을 짚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작가는 책 속의 그림을 만들면서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책인 동시에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업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로 보인 선문업송 21권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031-534-3373

조사祖師의 문門 안에 들어
불조佛祖의 근본 체득하는 길!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체득함이 생사 없음에 계합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합함이 생사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다."

출간 즉시 2쇄 돌입!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찰요禪門撮要》

모범 찬주·견우회 역을
변형크리운판 | 흑백 | 452쪽
15,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본래성품 깨달아 인간성 회복하는 핵심 선법문

《선문찰요》는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1849~1912)선사가 역은 책으로, 중국과 한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을 한 데 모은 대표적인 선어록. 해암선사가 편역한 달마해탈론(達磨血脈論),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보조진심직설(普照真心直說), 선경어(禪經語)의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한자 마다 한글 음을 달아 독송하기에도 편하다.

출판 및 배급양행출판인 문의 02-2632-8739
비움과소통 budhapias@daum.net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와강판, 일반기와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 충청도 : 010-8674-2357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